

“행복한 농촌 삶 해답 찾는 게 6차산업 목표”

국정기획위, 나주 전통염색조합 찾아 간담회…목포신항 세월호 수색 현황 점검도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나주와 목포를 찾아 지역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지난달 30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나주시 문평면의 전통염색조합을 방문하여 명화염색을 찾아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 개호 위원장을 필두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들은 천연염료 식물인 쪽 재배 시설을 둘러보고, 국가무형문화재 115호 염색장 전수교육관에서 염색 체험을 했다.

국정기획위는 견학을 마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6차산업 경영체와 농촌체험 휴양마을 대표들로부터 사업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들었다.

최경자 명화염색 대표는 “농촌의 미래는 돈이 아니라 가치의 문제”라며 “1차 원료를 생산하는 농민과 이를 가공하는 장인, 체험하는 도시민이 함께 사는 농촌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도 ‘농촌이 활력있는 삶터이자 일터이자 쉼터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높은 매출액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행복을 맛보고 함께 잘 사는 해답을 찾는 것이 6차산업 목표”라고 화답했다.

현장간담회에는 농민축산식품부, 전남도, 나주시 관계자 등이 동석했다.

국정기획위는 오후에는 세월호 현장수습분과가 꾸려진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수색 현황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가족·유가족과 각각 면담했다. 이 위원장은 “아직 찾지 못한 5명이 남았다”며 “화물칸 수색

은 미수습자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곳부터 해달라”고 주문했다.

선체 주변을 돌며 화물칸에서 꺼낸 자동차들을 살펴본 국정기획위는 이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수색작업업체 관계자

와 면담했다. 이 위원장은 “철저한 조사로 다시는 이 땅에 세월호 참사 같은 불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세월호 현장 점검을 마친 국정기획위는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을 따로 만나 격려했다.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청와대 앞길 개방 첫 주말 청와대 앞길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된 뒤 첫 주말을 맞은 2일 청와대 정문 앞에서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17개 부처 하반기 개방형직위 공모

인사혁신처는 올 하반기에 정부 17개 부처에서 개방형직위에 3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실·국장급 10명과 과장급 23명이다. 이 가운데 9개 직위는 ‘경력 개방형 직위’로서 민간출신을 뽑게 된다. 고용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부 강원대 사무국장,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장, 고용부 장애인고용과장, 해수부 해양생태과장, 조달청 감사담당관 등에는 민간출신을 선발한다.

올 하반기에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매달 초 제시되는 부처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하며, 공모직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 사이트’(http://www.gojobs.go.kr) 및 부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먼저, 7월에 선발하는 개방형직위는 10개다. 실·국장급은 해수부 국립수산물관리원장·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장·외교부 부대변인 등 3개 자리이고, 과장급은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국가보훈처 제대군인취업과장·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등 6개 자리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협상 기한 넘겨…노 ‘1만원’ vs 사 ‘6625원’

PC방·편의점 등 8개 업종 차등적용 차기 회의서 논의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확정하기 위한 노사 간 협상이 올해도 이견을 보이며 법정 심의기한 내에 마무리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5차 전원회의가 끝날 때까지 임금안을 내놓지 않았던 노동계와 사용자측은 이날 회의에서 각각 임금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5% 인상

한 ‘1만원’을, 사용자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625원’을 각각 제시했다.

사용자측은 그러나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했다.

노사 양측은 결국 공익위원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8개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 여부는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

다.

법정 심의기한인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3시에 7차 전원회의를, 5일에는 8차 전원회의를 각각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법정 심의기한은 29일이며, 고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됐다. /연합뉴스



지난 3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문정왕후어보’와 ‘현종어보’ 반환행사에서 김연수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토마스 호먼 미국 이민관세청 청장 직무대리에게 유물을 전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정왕후·현종 어보’ 대통령 전용기 타고 한국 왔다

불법 반출돼 미국으로 흘러갔던 문정왕후 어보와 현종 어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전용기에 실려 2일 국내로 돌아왔다. <관련 기사 16면>

두 어보는 조선왕실 유물을 조사·연구하는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운반되며, 내달 열리는 특별전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어보(御寶)는 왕실의 정통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의례용 도장이다. 문정왕후 어보는 명종 2년(1547) 만들어졌으며 가로·세로 각 10.1cm, 높이 7.2cm이며, 거북 손잡이가 달린 금보(金寶)다. 현종 어보는 효종 2년(1651) 임금의

판아들이던 현종(1641~1674)이 왕세자로 책봉됐을 때 제작돼 ‘왕세자지인’(壬世子之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문정왕후어보는 한국전쟁 당시 불행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소장자의 판매로 LA카운티 박물관이 소장해 왔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3년 이 어보를 도난품으로 판단, 미국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진품 확인 및 법적 소송 절차 등을 거쳐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대사관에서 환수식을 갖고 공식으로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 /연합뉴스

독일 ‘통일총리’ 헬무트 콜 첫 ‘유럽연합장’ 업무

지난달 16일(이하 현지시간) 향년 87세로 작고한 독일 ‘통일총리’ 헬무트 콜의 장례식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열렸다.

일종의 유럽연합장(葬)으로 지난 1일 치러진 행사에는 독일과 유럽 주요 정치인과 그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에 함께했던 전 세계 유명 파르티너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명예유럽시민 콜의 역대 첫 ‘유럽연합장’ 아이디어를 낸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안토니오 타야나리 유럽의회 의장은 상주 격으로 조문장을 맞았다.

콜 전 총리가 안치된 관은 EU 깃발로 덮인 채 의사당 전면에 자리했고, 그 앞에는 독일, EU, 그리고 콜의 둘째 부인 마이케 이름의 조화가 놓였다.

독일과 특수관계인 이스라엘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부인과 함께 자리했고 EU를 떠나는 영국은 테리사 메이 현 총리와 존 메이저 전 총리가 나란히 추도행렬에 동참했다. 프랑스 역시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

코지 전 대통령이 조문명단에 같이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에서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가 조문대표로 왔다.

한국에서는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문 사절로 나섰고, 양경렬 마르켈 독일 총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추도사를 낭독했다.

구 동독 출신인 메르켈 총리는 “콜 총리가 없었다면 나를 포함해 1990년 전까지 베를린 장벽의 뒤편에서 살았던 수백만 명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것”이라며 고인의 통일 업적을 기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 세대에게 콜 전 총리는 이미 유럽 역사의 한 부분이였다”며 “그런 삶의 경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대답하고, 용기 있고, 역사적인 행동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에서 영결식을 마친 뒤 관은 스페인 지역으로 이동한 뒤 초대총리 콘라트 아데나워의 이름을 딴 공묘묘지에 안장됐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直通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1,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택

1. 신성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장 / 토지 / 기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담745㎡ 매3.66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면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중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방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공개모집 재공고(3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7. 6. 30.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사 장 : 1명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 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3. 응모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임원의 경력사유, 예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체육시설관리 등 관련업무 경력이 있는 분
 - 나. 공무원 3급이상 경력이 있는 분
 - 다. 공기업 경영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충분한 경영능력을 갖춘 분
 - 라. 대규모 조직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분
4. 주요 직무 및 사업
 - 사장의 주요 직무
 -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 직무(정관 제30조 임원의 직무)
 - 나. 내내·외적 관계 관리 직무
 - 다. 공사의 사업수행 관련 직무
 -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직무
 - 마. 기타 관련 직무
 - 공사 주요 사업
 - 가. 도시개발 및 분양
 - 나.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관리
 -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 라.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 마. 주차장 설치 운영 및 수탁관리
 - 바. 매장 및 화장 등 정사사업
 - 사.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위탁업무 수행 등
5. 사장 직무 수행 요건
 - 광주도시공사 사장 직무수행 요건 : 불 임
6. 사장의 임기계약 및 보수
 - 임용일로부터 3년 성과계약관련법에 의거 임기 내 해임가능 및 임기종료 후 1년 연임 가능
 - 연봉은 성과연봉제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임용대상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연차가 가산 조정 가능
7. 심사방법 및 합격자 발표
 -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등
 - 가. 1차 서류심사 : ‘지위자의 제출 서류, 및 자기검증기술서, 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 : 기업 경영능력, 전략적사고 및 비전 제시 능력,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 공사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비전, 공공성·기업성 조화 능력, 기타 자기검증 기술서 인사 검증 등
 - 공사 홈페이지에 합격자 발표(면접심사 일정 및 장소 포함)
 - 나. 2차 면접심사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서를 15분 이내 발표
 - 직무수행 계획 발표시 프레젠테이션 발표 또는 시연 발표 가능
 - 전문성, 리더십, 경영혁신 및 문제해결 능력, 조직 및 인사관리 능력, 의사전달과 협상능력, 윤리관 인품 등 종합면접 심사

다. 사장 후보자 복수 선정 : 면접심사 합격자 개별 유선 통지

다. 최종 면접심사에 합격한 사장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인 자치단체장에게 복수 추천

○ 자치단체장의 심사 등 : 시·의회 청문회 실시

○ 시장은 복수 후보 중 1명을 선정하여 시·의회의 청문회의 공개 검증을 통해 능력 및 도덕성 검증 결과보고서 의견을 받아 최종 임용

8. 지원서 접수 및 전형 일정

가. 접수기간 : 2017. 7. 5. ~ 7. 11, 08:00~18:00 (단, 휴일은 제외)

- 제출서류
- 1) 지원서 1부(소정양식)
- 2) 자기소개서 2부(소정양식)
- 3) 직무수행계획서 각 2부(소정양식)
- 4) 사정 임용 지원자 자기검증 기술서(소정양식) 1부
-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1부
- 6) 기본증명서(상설)
- 7) 경력증명서(근무처별) 각 1부
- 8) 보수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9) 국제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5년분)
-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우편 접수시 접수 마감 시간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경영지원팀(5층)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우편번호 61964)
- 광주시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알

나. 서류심사 : 2017. 7. 13. - 공사 홈페이지 공고

다. 면접심사 : 2017. 7. 17, 14:00 - 합격자 개별통보

라. 임용후보자 복수 추천 : 2017. 7. 17.

마. 시·의회 청문회 : 2017. 7. 18, 이후

바. 최종임용 : 시·의회 청문회 검증 이후

※ 상기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2배수(2명)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모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경영지원팀(062-600-66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광주도시공사 임원 직무수행 요건 2. 지원서(소정양식)
3. 자기소개서(소정양식) 4. 직무수행계획서(소정양식)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소정양식)
6. 사정 임용 지원자 자기검증 기술서(소정양식)

※ 붙임자료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mcc.co.kr)에서 다운로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